

화작칼럼 #1 화법 단독 지문

발문상의 유의점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202011, 202006, 201806, 201711)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202009, 201811)

다음은 라디오 방송이다. (201911)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201909)

다음은 강연이다. (201906)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201809, 201709, 201706)

‘~의 일부이다’ 발문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의 일부이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표/강연 등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의 일부이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문이 최소한의 형식적 완결성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

말하기 방식

화법 단독 지문의 1번 문항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소재는 ‘말하기 방식’이다. 그런데 말하기 방식은 왜 물어보는 것일까? 선지를 훑어봄으로써 대략 출제자의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말하기 방식 관련 선지 예시들

- ① 발표 대상의 종류를 열거하여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⑤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
- ①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
- ①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①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사연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 ② 사연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음 방송을 예고하고 있다.
- ③ 사연 내용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청취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④ 사연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고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사연에 대한 상담 중에 질문을 던지고 사연 속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①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군.
- ②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군.
- ③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하고 있군.
- ④ 청중을 칭찬하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여 청중과 긍정적인 유대감을 쌓고 있군.
- ⑤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군.

- ① 강연에서 제시된 용어를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③ 청중의 배경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강연의 앞부분에서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들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게 하고 있다.
- ⑤ 강연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말하기 방식-서두와 결론

위의 말하기 방식 선지들은 모두 ‘~의 일부이다’가 없는 세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아무튼 말하기 방식 선지들은 이상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화자가 택할 법한 좋은 전략들의 예시이다. 즉, 이것을 ‘말하기 전략’이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하기 전략 가운데에서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말하기 전략도 있지만, 특히 말하기의 ‘서두’와 ‘결론’ 부분에서 택하기에 적절한 전략들이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완결성을 갖춘 말하기에서는 ‘서두’ 부분에서 채택할 만한 전략과 ‘결론’ 부분에서 채택할 만한 전략이 선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밑줄 친 선지들은 각각 ‘서두’와 ‘결론’ 부분에서 흔히 쓸 법한 말하기 전략들의 예시이다.

그런데 ‘~의 일부이다’ 말하기에서는 한 번도 ‘결론’ 부분에서 쓸 법한 말하기 전략이 출제된 적이 없다. 애초에 형식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청중의 변화를 촉구한다든지 하는 결론 부분에서 채택하는 전략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일부이다’가 없는 말하기에서는, 말하기의 서두와 결론 부분을 읽으면서

서두에서 화제에 대한 흥미를 끌기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하는지, 서두에서 강연 내용에 대한 안내나 예고를 친절하게 해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봄 직하다.

반대로, 결론 부분에서는 말하기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는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청중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볼 법하다. 그러면 훌륭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쯤 눈여겨보면 좋다. 나머지 선지들 간에 특히 자주 두드러지는 것은 ‘질문과 응답’이다. 지문에 물음표가 찍힌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은 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화법 지문의 나머지 선지들 또한 어떻게 하면 청자가 화자의 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말로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평소에 화법 지문을 보다 능동적으로 읽기를 바란다. 치밀하게 잘 쓰인 화법 지문에서 발표자의 문장 하나하나에 말하기 전략을 담고 있다.

자료 문항

최근에 매력적인 소재가 된 또 다른 유형은 자료 문항이다. 자료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언제 어느 자료를 활용했는지를 알려 주는 유형과, 주어진 자료가 발표의 어느 시점에 활용되었는지를 알아내야 하는 유형이다. 후자의 경우도 아직 까다롭게 출제된 적은 없다.

자료 문항은 세트를 읽으면서 풀어야 한다. 실제의 강연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강연을 말로 다 들은 후에 자료를 보지 않는다. 자료를 보면서 강연자의 말을 듣는다. 화법 지문은 여기서 말하기의 과정이 텍스트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앞서 언급했듯 발표 내용 그 자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면의 한계 상 주어지는 자료는 대부분 ‘시각 자료’인데, 시각 자료의 어느 부분을 강연자가 짚어 가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지문을 읽으면 강연의 내용이 더욱 잘 이해될 것이다. 지문에서 넘쳐 나는 지시어들을 아무런 시각적인 도움 없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료 문항의 출제 요소와 관련된 것이다.

자료 문항은 자료가 (어떠한 맥락에서) (무엇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묻는다. 당연히 이 두 요소는 앞뒤 맥락을 읽은 직후에 파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맥락적 이해를 묻는 또 다른 유형은 간간히 출제되는 질문이나 대답 추론하기이다. 이 유형의 문항 역시 보이는 족족 해결해 주자.

듣기 후 활동

듣기 후 활동 역시 발문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자.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06)

다음은 위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댓글이다.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청취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11)

앞서 말하기 방식에서도 발문상의 차이점을 언급했는데, 위의 두 발문도 엄연한 차이가 있다. 최종 발문에서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등 ‘말하기 내용’에 관한 언급이 있는 물음과 그렇지 않은 물음은 당연히 묻는 것이 다르다.

듣기 후 활동 분석은 대부분 청중의 반응을 제대로 분석했는지의 선에서 정오가 갈린다. 그렇지만 ‘말하기 내용’에 관한 언급이 있다면, 청중의 반응이 ‘말하기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또한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들은 이분법적으로 완벽히 구분되는 대상은 아니다.) 이를 재미있게 표현한 발문이 다음과 같다.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09)

‘추가 설명’이라는 발문이 왜 생겼을까? 강연에서 상세히 설명한 내용은 ‘추가 설명’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말이다. 오히려 강연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한 내용이 ‘추가 설명’의 대상으로 보다 적절할 것이다.

말하기 계획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더 높은 빈도로 출제되었던 유형이다.

그런데 말하기 계획 역시 문제로 주어져 있다면 계획의 알개를 훑어보는 것이 좋다.

계획은 계획일 뿐인지라 완벽하게 반영되지는 않고, 문제를 푸는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지점은 계획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말하기 계획을 훑어보면서 발표가 대강 어떤 내용을 다룰 수 있겠구나 정도의 짐작을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말하기 계획은 흐름이 매우 요약적으로 나타나 있어, 지문을 읽으면서 흐름을 체크하기에도 좋다.

화법-작문 융합 지문, 그리고 작문 지문의 출제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어 보자.